

양파 농사도 기계화 시대... 인건비 확 줄인다

무안 동탄면 120여 농가 150ha 기계 정식

2018년 양파재배면적 80%까지 확대키로

국내 최대 양파 생산지인 무안에서 기계로 동원해 양파를 심는 시연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 양파생산농가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안군은 21일 "지난 19일 동탄면 다산리에서 올해 처음 양파 기계정식을 시작으로 120여 농가 150ha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양파농사 기계정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양파작업 기계화를 위해 12억7500만원의 예산을 반영, 기계작업이 가능하도록 재배표준화 및 밭비닐, 육묘상자 및 종자 코팅비 지원, 양파 정식기, 파종기, 전엽기(양파 줄기 절단기), 휴면파복기 등을 농가에 지원하며 양파농사 기계화 단지를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양파농업 기계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올해 105ha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양파재배면적의 30% 수준인 1000여ha에 걸쳐 기계화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양파재배면적의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농법인 파종 정식작업을 할 경우 10a당 38시간 소요되지만, 기계 정식시 36시간에 가능해 인건비 절약도 가능하다. 10a당 35만8000원의 인건비가 줄면서 올해 100ha를 기계화할 경우 3억58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전망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지난 19일 무안군 동탄면 다산리에서 시행된 첫 양파 기계 정식. 인건비 절감과 고품질 양파 생산이 가능해 농가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함평천지 멋과 향 가득 국향대전 25일 '광파르'

명품 국화작품의 진수를 보여 줄 '201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향대전은 관광객 동선 주요 길목에 대형 국화작품과 기획 작품을 배치한 야외 전시와 국화 분재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실내 전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 등으로 펼쳐진다.

축제장 중앙광장 입구에는 독립문의 실제크기와 모양을 본따 너비 11.48m, 높이 14.28m 규모의 대형 독립문 모형을 건립하고, 국화동산으로 조성되는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은 국화, 역사, 청보리, 좁은일해바라기로 6892㎡ 면적을 꾸민다. 또 마법의 성, 9층 꽃탑 등 대형국화 조형물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국화동호회 분재 200점 등 수백여점의 분재

작품도 전시된다.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함평 천지 한우를 상징하는 가로 6m, 높이 3.5m 크기의 황소 조형물도 잔디광장 인근 체험학습장 주변에 연출된다.

지난해 축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할머니 장터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확대 운영된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제3회 명품한우유리 경연대회'와 '2013 함평단호박 전국 요리 경연대회', 축제장 내 위치한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축제 기간 '남도미술의 거장전', '이태길 초대전' 등 특별한 전시회도 열린다.

개막식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9시 함평엑스포공원 입구 황소의 문 앞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서울 시민에게 함평과 국향대전을 홍보하기 위한 '국화향기 나눔전'을 개최하고 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단신

해남 '김남주 문학제' 연다

25일~27일 삼산면 봉학리 생가... 시낭송 등 다채

김남주 문학제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고 김남주 시인 생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김남주 문학제에는 한국작가회의 회원들과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이 대거 참여해 문학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밤 해남문화원에서 열리는 초청강연(강사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26일 김남주 만장시와 김남주·고정희 육필 원고 및 사진 전시 등에 이어 김남주 시 엮서 쓰기, 문학 강연과 시낭송이 함께하는 비타포럼 토크콘서트, 한국작가회의 회원 10명의 사인회, 선작순 100명에게 도서를 증정하는 작가와의 만남, 음식 나눔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27일에는 김남주 시인 생가에서 고정한 시인의 생가까지 걸어가시는 시인의 생가걸기 행사를 통해 두 시인의 문학세계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갖게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목포 연안 여객선 이용객 급증

올 3분기까지 528만명 수송... 전년동기비 13% 상승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1일 "올 3분기까지 목포 완도권 연안 여객 수송실적이 528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467만6000명보다 13% 오른 수치다. 지난해 여수세계엑스포 행사로 인해 관광객이 분산됐을 뿐만 아니라 불라벤 등 5개의 태풍 피해로 인해 해상교통 여건이 좋지 못했던 것에 비해 올 해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태풍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기상상태가 양호한 것이 결정적인 수송객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인 흥도와 슬로워크길 축제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청산도 등 주요 관광도서에 관광객도 크게 증가했다.

여객이 증가한 주요 항로를 살펴보면 목포와 흥도 간 항로는 전년 51만 1000명에서 6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완도항과 청산도 간 항로는 46만6000명에서 55만명으로 18%, 목포와 제주 간 항로는 51만 9000명에서 57만8000명으로 11%, 화흥포항(완도)~보길도~소안도 간 항로는 35만8000명에서 39만4000명으로 각각 10% 늘었다.

박성복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객 서비스 개선 및 여객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북

남원시 화장품 산업 육성 박차

주요 화장품 회사 임원 초청 세미나 개최·투자상담 등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 임원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시는 21일 "오는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의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2013 화장품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내의 친환경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가 1강 강연을 맡았다. 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조기업 지원(천연물 유래 화장품 개발)'이란 주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소희 연구원이 강연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을 주제로 남원시 원예허브와 박용섭 과장이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남원 투자기업 사례 발표'를 주제로 (주)하이솔 박이경 대표이사 발표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사전에 남원시에 투자상담을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 원예허브 및 경제과와 신청기업의 일대일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회는 남원시의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친환경 화장품 산업에 관심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새만금 수질 '십년하청'

10년간 1조원 투입 불구 화학적산소요구량 등 기준치 초과

인근 농지 유기질비료·가축분뇨 불법처리 수질 오염 '주범'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용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물질(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처리 수질은 지난 2001년 정부종합조치 계획(2001년~2010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185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질은 지난 2010년 11월 관리수위를 1.6m로 낮춰 더 악화했다가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추세지만 일부 구간(만경강 농업용지)은 지난해 목표수질 기준(총인(TP) 0.1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0mg/l)을 초과했다.

지난 10년간 새만금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물질(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처리 수질은 지난 2001년 정부종합조치 계획(2001년~2010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185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질은 지난 2010년 11월 관리수위를 1.6m로 낮춰 더 악화했다가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추세지만 일부 구간(만경강 농업용지)은 지난해 목표수질 기준(총인(TP) 0.1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0mg/l)을 초과했다.

이 같은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인근 농지의 유기질비료 사용과 주변 지역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전국 축산농가 분뇨 관리 실태 조사 결과 760개 축사 중 129개 축사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전북은 63개 시설 중 20개가 적발돼 전국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용남시장 상인대학 졸업생 60명 배출

남원시 용남시장 상인대학이 21일 졸업식을 개최하고,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상인대학'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진진흥원에서 전국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약 10주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졸업생들은 생업으로 바쁜 현실에도 매주 2회, 2시간씩 판매기법 및 점포관리,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은 임창욱(호남대) 책임교수의 사회로 우수학생에 대한 표창과 소감문 발표, 동영상 감상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군,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 4개월간 허용

고창군은 21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수렵장 설정지역은 고창군 전체면적(607.02km)의 60%에 해당하는 363,023km다.

수렵장 이용객을 1일 최대 800명으로 제한하고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청설모, 개치 등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공원, 군사시설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정읍시 오솔길 걷기행사 1000여명 참여 성료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체육회가 후원한 백제가요 정읍시 오솔길 정읍시민·관광객 걷기 행사가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 정읍시 공원 약수터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 김승범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시립 정읍시 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걷기 출발을 알리는 김생기 시장의 타종과 함께 오솔길 제1코스(6.4km) 구간을 걷기 시작했다. 백제가요 정읍시 읍사 공원 약수터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 김승범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시립 정읍시 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걷기 출발을 알리는 김생기 시장의 타종과 함께 오솔길 제1코스(6.4km) 구간을 걷기 시작했다. 백제가요 정읍시 읍사 공원 약수터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 김승범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시립 정읍시 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걷기 출발을 알리는 김생기 시장의 타종과 함께 오솔길 제1코스(6.4km) 구간을 걷기 시작했다. 백제가요 정읍시 읍사 공원 약수터 앞에서 열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전통고추장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장

단풍철 관광객·수학여행단 '단골'

순창군이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순창전통고추장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장이 가을 관광시즌 및 수학여행 시즌을 맞이하여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체험장은 전통고추장 제조과정의 인도를 받아 전통방식으로 고추장을 담는 체험과 직접 솥에 찐 찹쌀밥을 떡판에 올려놓고 체험객들이 떡메로 쳐서 떡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께 진행되는 떡볶이 만들기 체험 및 시식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18일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에는 전주 전일초등학교 63명의 학생들이 왔고, 19일에는 대전 은성관광에서 1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았다.

관광객 정보(여·43)씨는 "장류의 메카 순창에서 고추장을 직접 담겨 보는 체험을 실시해 고추장 제조법을 익혔다"면서 "직접 담은 고추장을 가지고 돌아갈 맛있는 요리를 해 가족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험행사는 온라인 및 전화로 1주일 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고, 20명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전통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떡 만들기 체험은 1인당 1만5000원이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을 할 경우 1인당 5000원이 추가된다. 체험 문의는 순창전통고추장 정보화마을 센터(063-653-0703)로 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지난 18일 순창전통고추장 정보화마을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일초등학교 학생들.

도내 대학 정원 10년간 1만여명 줄었다

전북도내 대학정원이 10년 동안 1만여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도내 대학정원은 모두 1만516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에 3만6362명이었던 도내 대학정원은 2013년에 2만5846명으로 28.9%나 줄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남과 경북(이상 31.5%), 제주(29.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의 감축정원은 10만7278명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